

# 서울특별시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337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6년 8월 12일
-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 2. 제안이유

- 가. 실험연극의 산실인 (구)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이 신규 조성될 예정으로, 본 시설을 기존 남산예술센터와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 나. 공연장 운영 및 공연예술 창작지원 등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서울문화재단에 통합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남산예술센터
- 소 재 지
  - 남산본관(기존) : 중구 소파로 138
  - 삼일로본관(신규) : 중구 삼일대로9길 12
- 시설규모
  - 남산본관(기존) : 대지 3,264.1㎡, 연면적 4,408.5㎡
  - 삼일로본관(신규) : 대지 352.1㎡, 연면적 417.03㎡
- 개관일자 : 2009. 6. 8.(본관)/ 2017. 3월중(분관)
- 이용대상 : 서울시민

###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1년('17. 1. 1.~'17. 12. 31.)
- 수탁기관 : 서울문화재단

○ 위탁업무

- 공연장(드라마센터, (구)삼일로창고극장) 및 예술교육관, 부대시설 등 관련 모든 시설물의 관리·운영
- 서울시의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위탁하는 문화예술사업 전반
- 기타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전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공간의 설치 권장)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민간위탁금 편성(2,880,000천원)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에 위치한 남산예술센터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9길에 위치한 삼일로 창고극장을 통합하여 현대연극의 창작과 실험 장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서울문화재단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하여 우리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1962년 현대연극 제작극장으로 건립된 남산예술센터는 우리나라 현대연극 창작의 산실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위탁하여 연극극장의 역할을 하는 드라마센터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예술교육관으로 운영 중임.

2016년에는 창작연극 총 12건 18개의 작품을 공연(총 108회)하여 2만 2천여명의 관객을 수용하였고, 6개 작품은 연극분야의 추천작 선정과 수상을 받는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켰다고 평가됨.

<표 1> 2016년도 남산예술센터 창작연극 수상 등 현황

작품명	극단 및 제작사	수상 및 선정 내용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극단 골목길 공동제작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선정 ·월간 한국연극 ‘2016 연극 베스트 7’ 선정 ·제53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시청각디자인상 수상
commercial, definitely	극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 공동제작	·제53회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그녀를 말해요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공동제작	·제53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곰의 아내	극공작소 마방진 공동제작	·제4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추천작 선정
파란나라	극단 신세계 공동제작	·제4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추천작 선정
나는야 연기왕	극단 그린피그 공동제작	·제18회 김상열 연극상 수상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동제작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창작연극의 외연을 넓히는 노력을 해 온 바, 서울시 내에서 역사성을 띤 대표적인 중극장으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현대연극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됨.

- 서울시가 남산예술센터의 분관으로 활용할 예정인 삼일로 창고극장은 1975년 국내 최초의 민간소극장으로 설립돼 ‘빨간 피터의 고백’, ‘우리들의 광대’ 등 다수의 창작연극을 성공적으로 상연시켰으나, 2015년 10월 극장주가 임대료 미납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관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2014년 삼일로 창고극장을 연극문화의 산실이라는 명분으로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던 바 있으며<sup>1)</sup>, 현재 대수선을 통해 기존 공연장 공간 외에도 연습실, 다목적실 및 부대시설 등 총 417㎡(126평)의 종합 공연시설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본 동의안은 2016년 8월 우리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이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음

1) 삼일로 창고극장은 2014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건물주가 재산권 행사 계약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연합뉴스, 15.10.28 보도), 최종적으로 현재는 서울시 미래유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또한, 우리위원회는 삼일로 창고극장의 가치가 ‘창고극장’에 있으므로 ① 원형을 보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② 임대료 미납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극장주에게 운영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③ 임대료가 다소 저렴한 곳으로 삼일로 창고극장의 원형을 복원하여 운영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은지 등 문제제기를 해왔었고,

본래 ④ 월 300만원이던 임대료<sup>2)</sup>가 건물주의 대수선과 임대공간의 확장이 있었다고는 하나 임대 예정금액이 월 1,403만원<sup>3)</sup>으로 수직상승한 점, ⑤ 향후 10년간 장기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⑥ 건물주가 4명으로 다수여서 계약상 불편함이 초래되는 점, ⑦ 계약만료 후 건물주의 결정에 따라 삼일로 창고극장의 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⑧ 임대보다는 매입이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해왔으나 관련 예산이 전년도 말에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서울시는 2017년 2월 14일 최종적으로 당초 안보다 100만원이 삭감된 월 1,303만원으로 삼일로 창고극장 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황임.

-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남산예술센터 본관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위탁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삼일로 창고극장을 분관으로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을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나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 삼일로 창고극장을 운영하던 정대경 대표가 밝힌 금액으로 부가세 불포함(매일경제, 15.10.28. 보도)

3) 2016년 11월 25일 임대계약서(안) 상 임대 예정금액, 부가세 불포함

<표 2>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 조례 제8조제3항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년 7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음.

<표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시는 민간위탁의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 사유로 ① 삼일로 창고극장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공공극장으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② 서울문화재단이 기존 남산예술센터 외에도 11개소의 창작공간을 운영해 오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는 점, ③ 통합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위탁사업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본관은 창작연극 중극장과 문화예술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고, 삼일로 본관은 실험적 공연예술 공연장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임.

<표 4>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 방안

구 분	운영 방안
남산예술센터 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제작극장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창작극 제작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 창작극 소개 및 우수한 대표 작품 개발(레퍼토리화)</li> <li>- 창작 원천인 극작가 육성 및 지원</li> <li>- 동시대 이슈를 담은 창작극 제작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li> </ul> </li> <li>○ 창작·제작·유통에 이르는 단계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단계 : 민간 협력극단과의 공동제작 시스템 운영</li> <li>- 제작단계 : 지역 문예회관 및 민간 문화재단, 해외제작극장과의 네트워크 구축</li> <li>- 유통단계 : 아트마켓, 페스티벌과의 적극적 교류 추진</li> </ul> </li> </ul>
남산예술센터 삼일로 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공연예술단체 대상 저렴한 대관료의 공간 대관 : 대관(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낭독공연, 쇼케이스 등 다양한 발표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li> <li>- 실험적 공연예술축제 프로그램 연계운영 : 변방연극제, 프린지 페스티벌 등</li> </ul> </li> <li>○ 민관거버넌스로 운영 : 커뮤니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파일럿 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등</li> <li>- 커뮤니티공간 공동운영 : 창고소극장 메모리얼 갤러리, 카페 등</li> </ul> </li> </ul>

출처 : 2017년 남산예술센터 기본운영 계획(서울시, 2017),

(구)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 조성계획(서울시, 2016)

(구)삼일로창고극장 운영현황

□ 운영경과

- '75. 5월 : 방태수씨가 '에저또 창고극장'으로 개관
- '76. 4월 : 유석진씨가 인수하여 '삼일로 창고극장'으로 재개관
- '83. 5월 : 추송웅씨가 인수하여 '떼아뜨르 추 삼일로'로 재개관
- '86. 8월 : 윤여성씨가 인수하여 '삼일로 창고극장'으로 재개관
- '90년 ~ : '삼일로 창고극장' 폐관, 이후 기존 건물 김치공장, 인쇄소 등으로 사용
- '98년 : 김대현씨가 인수하여 '명동 창고극장'으로 재개관
- '04년 : 정대경씨가 인수하여 '삼일로 창고극장'으로 재개관
- '15. 10. 26 : 경영상의 이유로 폐관

◆ **창고극장의 대표적 공연작품**

- ▶ 뱀('75년), 대머리 여가수•티타임의 정사•고도를 기다리며('76년), 빨간 피터의 고백('77년), 우리들의 광대('79년), 금관의 예수('88년) 등



삼일로 창고극장 전경



삼일로 창고극장 입구

(구)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 조성계획

(구)삼일로창고극장 및 인접건물을 임차하여 실험연극의 산실이었던 (구)삼일로창고극장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문화예술단체, 동아리들에게는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로 조성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구)삼일로창고극장은 1975년 개관하여 40년간 실험연극의 산실로 연극분야의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높아 미래세대까지 보전되어야 할 문화유산임
  - 1960-70년도에 개관하여 최근까지 운영된 서울시 소재 공연시설은 전체 383개 중 2.4%(60년대 1개, 70년대 8개)에 불과
  - ※ 문화관광체육부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 동량예술원(남산예술센터)('69년), 서강대학교 메리홀(701년), 국립중앙극장(73년), 어린이회관 무지개극장(75년), 삼일로창고극장('75년 개관), 세실극장(76년), 연우소극장(77년), 세종문화회관(78년) 등
- 민간이 본 공간활용시 일반 상업시설로 활용될 수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를 임차하여 연극 등 시민을 위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로 조성, 창고극장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그 의미를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

## (구)삼일로창고극장 서울미래유산 선정경위 및 보존사유

- ◆ 서울미래유산 선정 경위
  - '13. 2                              미래유산 심의 통과(문화예술분과)
  - '13.10                             서울미래유산 선정 동의(운영자)
  - '14.12~ '15.2                인증서 교부시 서울미래유산 선정 철회(운영자)
  - '15.3 ~                            서울미래유산 예비목록으로 관리 중(시)
  
- ◆ 보존사유
  - 40년의 역사를 가진 최초의 민간 소극장
  - 프로듀서 시스템에 의한 창작극 발굴과 신인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극장으로 1970년대 소극장 운동에 기여
  - 창고극장의 초기 무대는 관객이 사방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아래나형 무대로 무대 미학 발전에 기여

## II      추진경위

- '15. 4~9.            삼일로창고극장이 경영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시가 공공극장으로 인수 운영하는 방안 모색
- '15. 10.26        운영난으로 삼일로창고극장 폐관 발표
- '15. 12.            (구)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사업 예산 반영

## III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구 삼일대로9길 12                                      \*건립연도 : 1958년  
(중구 저동1가 20-2, 20-6, 20-7)
  - 면      적 : 대지 약352.1m<sup>2</sup>(약106.7평), 연면적 292.73m<sup>2</sup>(약88.7평)
- ※ 현재 소유자가 건물 대수선 및 증축 건축허가 진행중으로 대수선 완료 후 공부상 면적으로 임대

지 번	대지 (m <sup>2</sup> )	연면적 (m <sup>2</sup> )		비 고
		현재	대수선 후	
전 체	352.1 (106.7평)	292.73 (88.7평)	417.03(126.4평)	연면적 124.3m <sup>2</sup> (약37.7평)증축
20-2 (앞 건물)	소계	205	226.50(68.6평)	
	2층		56.2	연습실, 테라스
	1층		102.4	연습실, 카페
	지하		20.49(6.2평)	
20-6, 20-7 (舊창고극장)	소계	147.1	190.53(57.7평)	
	2층		33.06	사무실, 기계실, 소품실 등
	1층		100.99	극장





대상지 전경



위 치 도

- 임대기간 : 10년(장기임대) \*상세조건은 임대차계약체결시 확정
- 임대금액 : 상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지급
  - 대상지는 명동내에 위치해 있긴 하나, 명동성당으로 둘러싸여 있고 옹벽 위에 위치상 특이성으로 주변시세를 적용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 편성예산 : 700백만원(사무관리비 395, 시설비 300, 감리비 5)

#### IV

#### 공간계획(안)

- 서울미래유산 예비목록인 (구)삼일로창고극장(20-6번지)은 기존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비 구축 및 리모델링 실시
- 극장 앞 건물(20-2번지)은 연습실 및 세미나실,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
  - ※ 향후 세부적인 공간구성은 민간위탁 수탁자와 협의 추진

20-6번지(창고극장)	위 치	20-2번지
 <p data-bbox="284 1664 560 1693">&lt; 2층 : 소품실 사무실 &gt;</p>		 <p data-bbox="1082 1664 1393 1693">&lt;2층 : 연습실, 야외테라스&gt;</p>
 <p data-bbox="323 1910 520 1939">&lt;1층 : 공연장&gt;</p>		 <p data-bbox="1082 1910 1393 1939">&lt; 1층/지하 : 다목적룸, 카페&gt;</p>

# V

## 운영계획(안)

### □ 운영방향

- 인근에 위치하고 연극분야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남산예술센터와의 통합운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17년부터 변경 위탁계약을 통해 남산예술센터 관리시설로 추가 위탁

#### ◆ 통합운영의 장점

- 다년간 공공극장을 운영해온 전문인력 보유, 프로그램 운영의 수월성과 시설운영의 안정성 기대 ※ 특히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 노하우 및 전문자격인 보유
- 남산예술센터 공연장을 7년간 위탁운영해온 행정적 노하우로 운영의 적정성 기대
- 연극계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참여구조 마련, 유기적인 거버넌스형 운영체계구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민관협력 운영체계를 통한 중극장-소극장 프로그램 연계 기획·운영, 시너지 창출
- 연습공간 등 부대시설 확보를 통한 남산예술센터 공연제작 환경 개선으로 민간창작지원 확대

- 창고극장의 역사성을 이어 연극 단체에게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위한 작품제작·연습 공간 제공 및 소극장으로서 발표 공간지원

#### ◆ 남산예술센터 위탁현황

- 위 치 : 중구 소파로 138 (예장동)
- 소 유 자 : 동량예술원('15.1.1.~'17.12.31.)
- 규 모 : 대지 3,264.1㎡, 총면적 3,079.4㎡
  - 공연장(지하1층, 지상2층) : 2,186.7㎡, 480석 규모 중극장
  - 예술교육관(지상4층) : 892.7㎡, 문화예술 교육사업, 사무공간 등



< 공연장 >



< 예술교육관 >

- 운영방식 : 민간위탁(서울문화재단, '15.1.1. ~ '17.12.31.)
- 운영인력 : 18명(정규직 9명 포함)
- 민간위탁금 : 2,005,012천원

□ 프로그램운영(안)

- 대관(기획)사업 : 전문공연예술단체 대상 저렴한 대관료의 공간 대관
  - 낭독공연, 쇼케이스 등 다양한 발표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실험적 공연예술축제 프로그램 연계운영 : 변방연극제, 프린지페스티벌 등
- 커뮤니티사업 : 민관거버넌스로 운영
  - 연극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파일럿 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등
  - 커뮤니티공간 공동운영 : 창고소극장 메모리얼 갤러리, 카페 등

VI

민간위탁계획(안)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17.1.1 ~ 12.31.[남산예술센터 위탁기간('15.1.1. ~ '17.12.31) 일치]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서울문화재단(남산예술센터 수탁기관)
- 위탁사무 범위(남산예술센터 위탁사무에 추가)
  - 남산예술센터 내 공연장 및 예술관(1~4층), 삼일로공연장 등 시설관리 및 사업전반
- 수의계약사유
  - 남산예술센터와 (구)창고극장은 연극분야의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큰 공간으로 그 역사성을 시민들과 공유하면서도 공공극장으로서의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
  - 서울문화재단은 본 시설과 유사시설인 『대학로연습실』을 고유사업으로 운영하고,남산 예술센터 공연장을 7년간 수탁운영해오면서 공연예술 창작시설 운영의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옴
  - 특히 민관협력 운영체계를 통한 중극장-소극장 프로그램 연계 기획·운영으로 두 위탁 사업 운영의 시너지 효과낼 수 있어 본 시설의 운영기관으로 적정함